

예배가 즐거운가?

벤 호건



무엇이 당신을 즐겁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휴가가, 어떤 사람은 풋볼경기가, 가족 혹은 친구가, 여행이, 사우나가, 음악이, 혹은 영화가 즐거움을 준다고 한다.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중에 예배도 있는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도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이 없는 예배는 다윗이 쓴 시편 100편이 말하는 것과 반대된다.

1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2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3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

5대저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코로나19 이후 패쇄가 풀리시 시작할 때 대면예배로 돌아간 것을 잊지 못한다. 대학 1학년 학생이 나에게 와서 한 말이 기억난다: “예배에 올 때마다 정말 흥분되요. 내 모든 것으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보다 성숙한 말을 했다: “우리 모두 이 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의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올 수 있겠어요.” 그녀가 그 말대로 할 것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녀가 예배에 올 때, 그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건 간에,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녀는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고, 그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대학 1학년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바란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스스로에게 왜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지를 물어 보기를 권한다. 왜 예배가 당신에게 지루한 것이 되었는지를 자가진단할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만일 예배에 심드령해진 것이 혹시 하나님이 지루해져서라면, 그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라. 성경 전체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라. 당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자료들을 보라. 그것들이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찾게 할 것이고, 그것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당신의 능력을 비상하게 할 것이다.

만일 예배가 의례적이라고 느껴져서 지루하다면, 당신이 즐겨 앉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보라. 예배의 순서는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이 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당신에게 다른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에게 도전해 보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려는 준비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로 와보라. 만이 쉽지 않으면, 다음 주일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해 보라, “오늘, 나는 오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